7강 사물을 통해 마음의 세계로

(1) 양죽기, 백거의

●소개

: 백거의는 당시 중에서도 시를 쉽게 쓰는 편. 표현이 평이하여 편히 읽기도 좋다고 한다. 기는 기록이라기보다는 문장의 한 형식으로 자기의 생각을 써내려가는 글을 말한다. 양죽기는 직역하면 대나무를 기르면서 쓰는 글이라고 볼 수 있다.

養竹記 _ 白居易
양 죽 기 백 거 이

竹似[1]賢何哉: **대나무는 현명한 사람과 비슷한데 무엇 때문인가**
죽 사 현 하 재

竹本[2]固 [3]固以樹德: **대나무는 본디 단단함을 가지고서 덕을 세운다.**
죽 본 고 고 이 수 덕

君子見其本 則思[4]善建不拔者: **군자는 그것을 보고 선견불발자를 생각한다.**
군 자 견 기 본 즉 사 선 건 불 발 자

竹性直 直以立身: **대나무의 성질은 곧다. 곧음으로써 몸을 세운다.**
죽 성 직 직 이 입 신

---

1) 어질 仁 처럼 어짐, 현명함 자체를 말하기도 자나 인이 없어도 사람을 가리키기도 한다.
2) 固 흔들림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固에는 단단하다, 부사로 본디의 의미가 있다. 고루할 때도 쓰이는데 고루는 자기의 생각이 너무 단단하여 생각의 폭이 좁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3) 固以: 以固가 아니고 固以인 이유는 중요한 固를 강조하기 위해서다. 비슷한 예로 敬以直內 義以方外가 있다.
4) 노자에서 나오는 표현으로 善建不拔者은 잘 세운 것은 뽑히지 않는다. 라는 뜻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잘 세운 것은 固이다. 思는 다음을 생각한다. 의 정도로 쓰였는데, 시경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으로 거의 뜻이 없다.

君子見其性 則思中立不依者[5]: **군자는 그 성질을 보고 즉 가운데 우뚝 서 어느 한곳에 치우치지 않음을 본다.**
군 자 견 기 성 즉 사 중 립 불 의 자

竹[6]心空 空以體道: **죽의 가운데는 비어서 빔으로써 도를 체한다.**
죽 심 공 공 이 체 도

君子見其心 則思應用虛受者: **군자는 그 가운데를 보고 응용(할 것을) 생각한다.**
군 자 견 기 심 즉 사 응 용 허 수 자

竹節貞 [7]貞以立志: **죽의 마디는 정으로 뜻을 세운다.**
죽 절 정 정 이 립 지

君者見其節 則思[8]砥礪[9]名行: **군자는 그 마디를 보고 곧 지려명행한다.**
군 자 견 기 절 즉 사 지 려 명 행

[10]夷險一致者 夫如是故: **평탄한 것과 험난한 것이 일치한다.**
이 험 일 치 자 부 여 시 고

---

5) 시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사물을 보면서 사람과 사회를 보는 것을 알 수 있다. 의경이라 하여 중국의 대표미학이라고도 하는데, 사물이 마음 속으로 들어와 자연의 하나의 매개체로 삼는 것이다.

6) 心(심)은 그저 마음이 아니라 연필심처럼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體(체)한다라고 는 것은 체득의 맥락으로 몸으로 깨닫고 몸으로 직접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 것을 말한다.

지식을 아는 것은 기와 같다. 논어에서 배울 학은 본을 만드는 것이다. 본이라는 것은 하나의 틀이다. 즉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는데 있어서 받아들이는 하나의 틀이 되는 것이다. 시습이라는 것에서 습은 새가 계속해서 날개짓을 하는 것이다. 즉 때마다(때에 맞게)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7) 貞(정): 정은 바를 정의 의미가 강하다. 정의 卜(복)는 점치다와 연관된다. 점을 친다는 것은 단순 주술적인 의미가 아니라, 나온 점을 해석하는 사람의 것이다. 바른 길을 알려주는 사람을 정인이라고 했다. 점을 해석하는 것은 본리가 필요하다. 해석의 근거를 자연에서 찾았고 그것이 정형화된 것이 64계다. 주역은 하나의 수양서로 읽혔다. 점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판단주체가 어떤 행위를 할지 이기 때문에, 주체가 어떻게 하느냐의 지침으로써 수양서로 읽힐 수 있던 것이다.

8) 砥礪名行(지려명행): 砥礪(지려)는 원래 숫돌을 가리키는데, 명행과 합쳐져 명예와 행동을 연마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9) 名(명)은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전달수단 중 대표적인 것이 구문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의 평판과 관련되는 것이 명성이었다. 삶에서 묻어나오는 그것이 알려져서 회자되는 것이 명성이다.

10) 夷(이): 오랑캐, 많다, 평평하다. 여기에서는 쉽거나 어렵거나 하나로 생각하고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君子人 多樹之 爲[11]庭實焉: **군자같은 사람들은 많이들 마당에 그것을 심는다.**
군자인 다수지 위 정실언

貞元十九年春: **803년 봄**
정원십구년춘

[12]居易以[13]拔萃選及[14]第: **내가(거이) 과거에 급제했다.**
거이이 발췌선급 제

授[15]校書郞 始於長安 求[16]假居處: **교사랑에 임용되어 장안에서 처음 살기 시작할 때 임시거를 구했다.**
수 교서랑 시어장안 구 가거처

得常樂里故關相國私第之東亭而處之: **상락리에 살던 돌아가신 관성국의 사제지의 동정을 얻어 거처하게 되었다.**
득상락리고관상국사제지동정이처지

明日屨及于亭之東南隅: **다음날 정지의 동남의 모퉁이에 봤다.**
명일구급우정지동남우

見叢竹於斯: **모여있는 대나무들을 여기서 보았다.**
견총죽어사

枝葉殄瘁 無聲無色[17]: **그 가지와 잎이 모두 문드러져 (잎이 서로 부딪혀서 나는)소리도 색도 없었다.**
지엽진췌 무성무색

詢乎關氏之老 則曰: **관씨의 나이 많은 분을 찾아가니 곧 말을 해줬다.**
순호관씨지노 즉왈

---

11) 庭實: 조정 마당에 공물을 진열해놓은 것을 의미하는데 그처럼 많다는 것을 비유해서 표현한 것이다.
정실
12) 居易: 내가, 겸손하게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거이
13) 拔萃: 과거 시험의 종류다.
발췌
14) 第: 순서에 미쳤다. ~까지 딱 끊는 것이니간. 대나무에 가죽을 차례차례 묶어서 내려가는 것일다. 때문에 서열, 순서라는 의미를 가진다.
제
15) 校書郞: 지금으로 따지면 국립도서관 사서 정도다.
교서랑
16) 假: 임시 정도 이 뜻이다
가
17) 비슷한 예로 殺生者不死: 살생자는 죽지 않는다(직역ver), 억지로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수 없다. 뜻만 취하는 것을 단장취의라고 한다.
살생자불사

此相國之手植者: **(그 대나무는) 차상국이라는 자가 손수 심은 것이다.**
차 상 국 지 수 식 자

18)自相國19)捐館 他人假居: **차상국이 집을 버린 이후론 다른 이가 임시로 거하였는데**
자 상 국 연 관 타 인 가 거

繇是 筐篚者斬焉 篲箒者刈焉: **여기 말미암아 광주리 만드는 이가 그걸 베고, 비를 만드는 이가 베어갔다.**
요 시 광 비 자 참 언 수 추 자 예 언

刑餘之材 長無尋焉 數無百焉: **형벌받고 남은 짜투리의 나무 재목들은길이가 심(길이의 단위)정도 되는 것도 없고, 수도 백개도 되지 않았다.**
형 여 지 재 장 무 심 언 수 무 백 언

又有凡草木 雜生其中: **또 많은 초목들이 그 사이에서 마구 자란다.**
우 유 범 초 목 잡 생 기 중

苯蓴薈蔚 有無竹之心焉20): **무성하고 빽빽하게 있는 초목들이 대나무를 없애버리려는 심사로 보였다.**
분 순 회 울 유 무 죽 지 심 언

---

18) 自: 이후로라는 뜻으로 쓰였다.
자
19) 捐館: 버리다, 연관은 돌아갔다(죽었다)의 완곡한 표현이다.
연 관
20) 有無竹之心焉: 有는 心까지 걸려, 無가 동사로 대나무를 없애다. 라는 뜻이 된다.
유 무 죽 지 심 언 유 심 무

居易惜其嘗[21]經長者之手: **내가 애석하게 생각했다. 일찍이 장자의 손을 거쳤을 때**
거 이 석 기 상 경 장 자 지 수

而見賤俗人之目: **천박한 속인들의 눈에 띄어**
이 견 천 속 인 지 목

翦棄若是 本性[22]猶存: **잘리고 버려졌으나 본성이 아직도 남아있다.**
전 기 약 시 본 성 유 존

乃刪翳薈 除糞壤: **빽빽한 것들을 자르고 더러운 흙을 제거하여**
내 산 예 회 제 분 양

疏其間 [23]封其下: **그 사이를 트이게 하고, 그 아래를 동그랗게 만든다.**
소 기 간 봉 기 하

[24]不終日而[25]畢: **하루가 다 끝나기 전에 마치고**
부 종 일 이 필

於是 日出有淸陰: **이때 해가 나오니 맑은 그늘이 생기고**
어 시 일 출 유 청 음

風來有淸聲: **바람이 오니 맑은 소리가 생겼다.**
풍 래 유 청 성

依依然欣欣然 若有情於感遇也: **가늘고 부드러운 것이 흔들리는 것처럼, 살랑살랑흔들리는 것처럼 대나무의 모습이 마치 (나를) 대우해주는 감정으로 표현하는 것 같다.**
의 의 연 흔 흔 연 약 유 정 어 감 우 야

嗟乎 竹植物也 於人何有哉: **아! 죽은 식물인데 사람과 무슨 상관이냐**
차 호 죽 식 물 야 어 인 하 유 재

[26]以其有似於賢 而人猶愛惜之 封植之: **현인과 비슷한 점이 있어 사람들이 오히려 애석하게 여겨 봉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이 기 유 사 어 현 이 인 유 애 석 지 봉 식 지

---

21) 經(경): 경유한다, ~까지
22) 猶(유): 오히려 -와 같다, 그래도, 아직도
23) 封(봉): 북돋는다, 봉분, 예)봉분재
24) 不(부)는 ㄷ, ㅈ앞에서는 부라고 발음된다.
25) 畢(필): 마치다
26) 以其(이기), 以(이), 其以(기이): ~때문에

況其眞賢者乎: **하물며 진정한 현자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황 기 진 현 자 호

然則竹之於草木 猶賢之於衆哉: **죽의 초목의 관계는 대해선 현인의 중인과도 같다.**
연 즉 죽 지 어 초 목 유 현 지 어 중 재

嗚呼 竹不能[27]自異 惟人異之: **대나무는 자기자신을특이하게 여길 수 없지만, 사람들이 특이하게 여길 수 있다.**
오 호 죽 불 능 자 이 유 인 이 지

賢不能自異 惟用賢者異之: **현자는 자기자신을 특별하게 여길 수 없지만 현명한 이를 쓰는 사람이 특이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현 불 능 자 이 유 용 현 자 이 지

故作養竹記 書于亭之壁: **그래서 양죽기를 지어 정자의 벽에 글씨를 써넣어**
고 작 양 죽 기 서 우 정 지 벽

以貽其後之居斯者: **후대에 여기 살 자에게 주고자 했다.**
이 이 기 후 지 거 사 자

亦欲以聞於今之用賢者云: **또한 그렇게 해서 오늘날 현명한 이를 등용하는사람에게까지 듣고자 하기 위함이다.**
역 욕 이 문 어 금 지 용 현 자 운

27) 自(자): 목적어 버전으로 동사 앞에 온다. 예)자포자기, 앞에 동사가 오는 경우 예)수기치인 이: 다르게 여기다, 특이하게 여기다

(2) 붕당론, 구양수

朋黨論 _ 歐陽脩
붕 당 론 구 양 수

28)臣聞朋黨之說 自古有之: **신이 붕당의 설을 들었는데 그것은 예로부터 있었습니다.**
신 문 붕 당 지 설 자 고 유 지

惟29)幸人君 辨其君子小人而已: **오직 인군이 군자와 소인을 변별할 뿐입니다.**
유 행 인 군 변 기 군 자 소 인 이 이

大凡君子與君子 以同道爲30)朋: **(대범한) 군자는 군자와 더불어 도에 동참합니다.**
대 범 군 자 여 군 자 이 동 도 위 붕

小人與小人 以同利爲朋: **소인과 소인은 이에 동참함으로 무리를 만듭니다.**
소 인 여 소 인 이 동 리 위 붕

此自然之理也: **이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차 자 연 지 리 야

然臣謂小人無朋 惟君子則有之: **그러나 신은 소인은 붕이 없고 군자만이 붕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연 신 위 소 인 무 붕 유 군 자 즉 유 지

其故何哉: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 고 하 재

小人所好者利祿也 所貪者財貨也: **소인이 좋아하는 것은** 祿**이고 탐하는 것은** 財貨 **입니다**
소 인 소 호 자 리 록 야 소 탐 자 재 화 야 록 재 화

當31)其同利之時 32)暫相黨引以爲朋者 僞也: **(이익에 동참하는) 그 때가 되어서**
당 기 동 리 지 시 잠 상 당 인 이 위 붕 자 위 야

---

28) 臣(신): 임금을 겨냥한 말
29) 幸(행): 바라다
30) 朋(붕): 뜻이 같은 사람
31) 當(당): ~한 때가 되어서
32) 暫(잠): 잠시

잠시 서로 무리를 지어(당을 지어) 서로 당겨 붕을 삼는 것은 거짓입니다.

及其見利而爭先: **이익을 보고서 앞을 다투는 때에 미쳐서(그 때가 되어서)**
급 기 견 리 이 쟁 선

或利盡而交疏 甚者反相[33]賊害: **혹은 이가 다 없어져버리고 서로 사귐이 소원해지고 심지어는 상반되어 도리어 둘 다 해칩니다.**
혹 리 진 이 교 소 심 자 반 상 적 해

雖其兄弟親戚 不能相保: **비록 형제, 친척이라도 서로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수 기 형 제 친 척 불 능 상 보

故臣謂小人無朋: **그래서 소인은 無朋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 신 위 소 인 무 붕 무 붕

其暫爲朋者 僞也: **잠시만 朋을 만드는 것은 거짓입니다**
기 잠 위 붕 자 위 야 붕

君子則不然: **군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군 자 즉 불 연

所守者道義 所行者忠信 所惜者名節: **(군)자는 도의를 지키고충신을 행하고 명절을 애석히 여기고**
소 수 자 도 의 소 행 자 충 신 소 석 자 명 절

以之修身 則同道而相益: **그것을 가지고 몸을 닦으면 즉 도에 동참아여 이익을 나눕니다.**
이 지 수 신 즉 동 도 이 상 익

以之事國 則同心而共[34]濟: **그것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면 곧 마음을 같이 하고**
이 지 사 국 즉 동 심 이 공 제

終始如一 此君子之朋也: **끝과 처음이 같으니 이것이 군자의 붕입니다.**
종 시 여 일 차 군 자 지 붕 야

---

33) 賊(적): 상해도 있고 갈취도 함, 盜 상해는 없고 갈취만 함

34) 濟(제): 물을 건내주는 것, 이룰 성의 의미로 많이 쓰인다. 즉 여기에서는 이룸을 함께 한다는 의미로 쓰였다

故[35]爲人君者: **임금이 된 자는**
고 위인군자

但當退小人之僞朋 用君子之眞朋: **단지/다만 마땅히 소인의 위붕을 물리치고 군자의 진붕을 사용하면**
단당퇴소인지위붕 용군자지진붕

則天下治矣: **곧 천하가 다스려집니다.**
즉천하치의

※구양수의 붕당론 후반부는 8강에 계속됩니다.

35) 爲(위): 여기서 be동사의 의미로 되다로 쓰였다. 업적, be동사로 되다, 하다의 의미와 위하여, 인위적인 것, 때문에, 다스릴 치 예)위국: 나라를 만든다, 피동을 만드는 말로 사용된다.